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10. 22.(목) 09:00부터
담 당 자	김동겸 금융시장분석실장 (02-3775-9058, dgkim@kiri.or.kr)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02-3775-9115)
매 수	총 4매

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7년 보험산업, 3.5% 성장에 그칠 전망
 성장·이익·자본의 질 저하에 대응한 수익 기반 강화와 자원 재배분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김현수)은 10월 22일(목) 오전 8시에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함
- 보험연구원 김동겸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은 「2027년 보험산업 전망」을, 김해식 연구조정실 실장은 「2027년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함

2027년 국내외 경제, 성장세는 이어지나 2026년보다 둔화될 전망

- 2027년 국내외 경제는 2026년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관별 전망은 1%대 후반에서 2%대 후반까지 편차가 존재함

- 물가는 성장세 둔화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어, 2027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금리는 2026년 하반기 고점을 형성한 뒤 2027년 상반기 중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임
 - 주가와 환율은 통상환경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대외적으로는 중동사태 장기화, AI 투자 조정과 반도체 경기 둔화, 미국 통상압력 확대가, 대내적으로는 불균형 성장의 소득·소비 파급 지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 취약가계·자영업자의 상환여력 약화가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

2026년 상반기 보험산업 성과는 개선되었으나, 성장·이익·자본의 질은 저하

- 2026년 상반기 보험산업의 최종 성과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구성항목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당기순이익과 CSM, K-ICS 비율은 모두 1년 전보다 개선됨
 - 그러나 당기순이익 증가는 보험손익이 아니라 투자손익에서 발생하였고,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위험률차는 양 업권 모두 음(-)으로 고착되었으며, 자본 증가분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증가는 미미함
- 이러한 양상은 영업·수익·자본구조와 효율성 전반의 제약요인에 기인함
- (영업구조) 생명보험은 무·저해지환급형, 손해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상품 쏠림이 심화되고 모집은 대면·GA에 집중되면서, 판매촉진비 중심의 비용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수익구조) 영업이익에서 보험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 40.1%, 손해보험 61.5%에 그치며, CSM은 증가하나 가정·경험조정에 따른 감소와 요구자본 부담이 함께 확대되고 있음
- (자산·자본구조) 생명보험의 고금리 계약 역마진과 손해보험의 중소기업 대출 집중으로 투자손익의 보전 여력이 제한되며, 가용자본 증가분 대부분이 평가이익임
- (효율성) 사업비 증가가 신계약 CSM 창출로 연결되지 않아 자본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규제는 단기적으로 성장 여력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수료 체계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같은 영업규제는 모집비용 조정을, 기본자본비율 제도, 계리가정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는 자본확충을 요구함으로써 신계약 유인과 영업여력에 영향을 미칠 것임

2027년 보험산업 성장률은 3.5%로 둔화될 전망

○ 2027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은 3.5%로, 2026년(8.0% 예상)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7년 전체 보험료 규모는 29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성장을 이끄는, 저축성·변액·퇴직연금이 감소하며 2.3%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4.5% 증가할 전망임
-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생명보험 4.0%, 손해보험 5.0%로 증가율이 높아짐
- 보험료 증가액의 89%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2027년 보험산업은 수익 기반 강화와 자원 재배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필요

-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2027년의 보험산업 과제를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 대응 과제」와 그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 대응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 보험연구원은 2027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 보장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면서 노후소득, 건강·돌봄, 기업위험 등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자원을 재배분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장과 서비스의 연계, 계약군별 자산·부채 및 유동성 관리, 위험경감형 보험 인수, 보험금 청구·지급 업무의 재설계, 상품 전 과정에 대한 책임과 시정 권한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품질기준 정비, ORSA 개선계획의 이행력 확보, 공동 위험데이터 구축, 계약 유지성과를 반영한 판매보수 체계, AI와 외부 위탁에 대한 통제권 확보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사업 전환과 보장 공급능력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과 시장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 김현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은 영업력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결정한다”라며 “리스크관리 역량을 키워 보장갭을 메우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라고 밝힘
 - 또한 “보험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인수한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행 역량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쌓아야 한다”고 강조함